



Analyst 윤혁진 · 3773-9025 · hjyoon2019@sks.co.kr

Analyst 박형우 · 3773-9035 · hyungwou@sks.co.kr



- ✓IRA 세부지침은 한국 양극재와 전구체 기업에 우호적
- ✓양/음극활물질은 국내 생산 후 미국 수출시 세제혜택. 동박, 알루미늄박, 분리막, 전해액 등은 장기적으로 미국 진출해야
- ✓현대차/기아 북미생산 EV도 북미산 배터리 탑재시 세제혜택

## Battery Insight: IRA 세부지침은 한국 양극활물질, 전구체 기업 수혜

IRA 상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공개(3월 31일)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

- 4월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7,500 세액공제 혜택 가능

IRA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양극/음극활물질은 국내 생산 후 미국 수출해도 가능. 동박, 알루미늄박, 분리막, 전해액 등은 28년까지 미국 진출해야

- 양극활물질 생산 기업(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등)은 미국 진출 최소화로 투자비 감축 가능(미국 진출시 투자금액은 한국대비 2~3배 필요). 국내 투자 확대 및 미국 진출 축소 및 연기 예상

- 전구체 투자 가속화 예상(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포스코케미칼, 한국전구체, 제이에이치화학공업 등)

현대/기아차의 북미 생산 EV도 북미산 배터리를 탑재시 세액공제 가능

AMPC(생산자세액공제) 관련 추가적인 확정은 언급 없음: 한국 배터리 3사의 수혜 정도와 기간의 확정은 아직

**배터리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Critical minerals + 양극재와 음극재는 구성소재 (Constituent materials)로 인정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 및 가공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 인정(추기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일본에서 채굴, 가공된 광물 사용한 배터리에 IRA 혜택 제공 위한 협정 체결)

-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니켈의 인도네시아, 리튬의 아르헨티나 등)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지급(부가가치 50% 이상 충족시 인정)

- 2023년 4월 18일 이후 위 조건을 갖춘 핵심 광물 비중 40% 이상이어야 보조금 대상. 24년 50%, 25년 60%, 26년 70%, 27년부터 80%로 확대 → 전구체, 수산화리튬의 한국 또는 미국(중국 외) 투자 필요

# Issue Comment

**배터리 구성품(Component):** 양/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

-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이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될 것. 배터리란 배터리 모듈(배터리 셀의 합)을 의미
- 2023년 4월 18일 이후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어야 함. 24~25년 60%, 26년 70%, 27년 80%, 28년 90%, 29년부터 100%
- 동박, 알루미늄박, 분리막, 전해질 등의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에 공급을 위해서 미국 진출해야(전해액은 원래 현지 생산이 필요한 품목으로 엔켐, 동화기업, 덕산테크코피아의 북미 공장 계획 진행 중.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동박 기업들도 전기 생산이 안정적인 지역을 위주로 북미 진출해야. 알루미늄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북미 시장에서 경쟁 확대될 전망)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